

광주 백화점 설 선물세트 10만원 이하 늘리고 기획상품 승부

오는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업계가 선물세트 본 판매에 나선다. 10만원 이하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상품을 늘리고, 각자 기획상품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오직 광주신세계에서만... 'ONLY' 광주신세계 기프트 =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 판매에 돌입한다.

특히, 오직 광주신세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ONLY' 광주신세계 기프트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현지 바이어' 제도를 통해 신선식품 제품의 80% 상당의 상품을 지역제품들로 준비해 왔다. 다가오는 설 명절 역시 현지 바이어가 엄선한 다양한 지역 선물세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우선 나주, 함평, 장흥의 우수 한우 제품으로 '한우 후레쉬 알뜰 특호'(20만원), '한우 후레쉬 산지 특호'(21만원) 등을 선보이며, 영광에서 가공한 수협 영남 '특선굴비 만복'(25만원)과 '다복'(20만원), 완도 '덕우도 참전복 다복'(24만원), '자연산 전복 오복'(19만원) 등을 준비했다.

여기에 높아지는 건강·친환경 관련 선물 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상품 구성도 확대했다.

● 광주신세계

ONLY 광주신세계 기프트

덕우도 전복·한우 후레쉬 등

가성비 높은 상품 30% 늘려

홍삼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20% 이상 물량 확보해 고객 선전에 나선다는 전력이다.

정관장 홍삼달임액(15만원), 정관장 홍삼톤 마일드(14만원), 강개상인 홍삼 특선세트(9만원) 등을 선보인다. 이외 'GNC 남녀종합 비타민세트'(12만6000원), '세노비스 슈퍼바이오릭스'(6만3000원) 등도 준비했다.

또 친환경 한우 상품과 사과·배·한라봉 등 저탄소 인증 과일 확보는 물론, 분리수거 가능한 패키지 사용을 통해 친환경 선물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 부정정착금지법 개정으로 인해 10만원 이하 세트 상품 매출이 전체 매출의 구성비의 42.2%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 가성비 좋은 저가 세트 상품 물량을 전년 대비 30% 확대했다.

● 롯데 광주점

정육세트·영광 굴비세트 등

농축수산물 500개 품목 준비

'황금돼지의 해' 선물 차별화

10만원 이하 대표 품목으로는 '한우 후레쉬 실속'(9만원), '로얄 비프 만복'(10만원), '국내산 쇠고기 견과 육포 세트'(10만원), '콜럼비아 크레스트 와인 세트'(6만원) 등이다.

지역 가성비 상품으로는 '덕우도 전복 실속세트'(10만원), '백산 인삼 1호'(6만9000원), '담양한과 아리'(10만원) 등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황금돼지해 기념 기획상품 선보여=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월 4일까지 설 명절 본 판매에 나선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선물세트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을 20% 이상 구성했고,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도 지난해 대비 10% 이상 늘린 500여개 품목을 준비했다.

'한우 3대 인기 정육세트'(불고기·국거리·산적 각 500g)와 '한우 스페셜 정육세트'(불고기 400g×2입+국거리 400g×2입)를 9만9000원에 선보이며, '모슬포 수산물 정선세트 2호'(은갈치 600g+가자미 700g)는 10만원, 영광 법성포 어물전 실속 굴비세트(0.8kg×10마리)는 7만원이다.

또 황금돼지해를 맞아 '황금돼지의 해' 기념 선물세트를 내세우며 차별화도 꾀한다.

황금 돼지해를 기념해 황금 돼지 로고를 새겨 넣은 특별 에디션인 'KY 이태리 럭셔리 1호'(탈로 프리미티보+신퀀타)를 29만원에 선보인다.

한정판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특별하게 선보인다.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No.9로 구성된 프리미엄 한우 상품세트인 'L-No.9세트'(총 6.5kg)를 롯데백화점 전점 100세트 한정으로 135만원에 판매하고, '울릉칠소명품세트'(총 4.2kg) 역시 200세트 한정으로 98만원에 판매한다.

SY이탈리아 명품 2호 달포르노 로마노 아마로네 와인 전점 3세트 한정으로 136만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설 명절 상품으로 인기가 많은 영광 굴비세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 업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자 기획상품과 10만원 이하 실속상품 등을 마련, 선물세트 본 판매에 돌입한다. <롯데쇼핑 제공>

올해 설 차례상(4인 가족 기준)을 차리는데 20만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 설 차례상 20만4230원

전년비 2.3% 올라...과일 오르고 수산물 하락

한국물가협회(가설)를 3주 앞두고 광주를 비롯한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 등 전국 6대 주요 도시의 전통시장 8곳에서 차례용품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이 20만4230원으로 지난해(19만9천630원)보다 2.3%(4600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폭염과 냉해 등의 기상이변으로 사과, 배 등 차례상에 쓰이는 과일류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채소류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은 전년 수준이거나 일부는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과일류에서 상품 5개를 준비하는데 사과의 경우 11.9% 오른 1만4070원, 배는 30.2% 오른 1만8820원이

들었다. 견과류에서는 폭염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대추 400g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21.1% 상승한 5680원으로 집계됐다.

채소류 및 나물류는 비교적 양호한 작황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였다.

애호박의 경우 지난해보다 가격이 18.1% 하락했으며, 월동물량이 늘어난 대파와 무 역시 14.6%, 18.1% 각각 내렸다.

수산물 중 수입산 조기(부세), 북어포한 마리씩과 동태포(1kg)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1만9250원으로 지난해보다 1.3% 하락했다.

육류도 쇠고기(산적용 600g)와 돼지고기(수육, 목삼겹 1kg)의 경우 지난해보다 각각 12.6%, 2.9% 가격이 내렸다.

/연합뉴스

지난해 편의점 1천원 커피·캔맥주 잘 팔려

경기침체·물가상승 영향 서민들 '혼술' '홈술' 즐겨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진 지갑 사정이 지난 한 해 편의점 매출 변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서민들은 커피전문점 대신 한잔에 1천원 안팎인 편의점 커피를 찾았고, 술집 대신 캔맥주와 소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편의점 CU(씨유)에 따르면 지난해 매장에서 직접 내려 판매하는 즉석 원두커피 매출이 전년 대비 42.9% 급신장했다.

2017년 전체 상품 중 판매량 10위를 기록했던 편의점 원두커피는 지난해에는 2위로 경쟁 뛰어올랐고, '스튜디오라' 배나우유(4위)의 아성마저 무너뜨렸다.

판매 1위는 커피나 음료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컵 얼음이었다. 즉석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전용 디저트의 매출이 동반 상승했다.

또찌 롤이나 생크림 케이크 등 디저트

매출은 전년 대비 4.3배나 뛰며 전체 상품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다.

체감 경기 악화는 음주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술을 사서 집에서 혼자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캔맥주 카스는 판매량 9위, 참이슬은 3위를 기록했다. 2016년 판매량 8위였던 캔맥주는 2017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가 지난해 재진입했다.

수입 맥주도 여전히 강세였다. 지난해 수입 맥주 매출은 16.2% 증가했다. 전체 맥주 매출 가운데 수입 맥주 비중은 60.4%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산 맥주 매출은 0.3% 증가에 그쳤고 비중도 39.6%로 줄어들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생수 용량도 달라졌다.

500ml는 부족하고 2L는 지나치게 많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내놓았던 1L 짜리 생수가 처음으로 판매량 10위에 올랐다.

반면 편의점 인기 상품으로 수년간 판매량 상위에 올랐던 캔커피 '레쓰비'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광주 설 명절 선물 수산물 인기

이마트 사전예약 순위 1위

롯데백 광주점도 18% 신장

올해 광주에서는 설 명절 선물로 수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광주지역 이마트 5개점의 설 명절 사전예약 실적을 살펴본 결과 사전예약 실적은 전년 대비 6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 인기순위를 보면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수산 선물세트가 1위로, 이는 지난해 과일과 조미료, 통조림, 축산에 이어 5위였던 점과 확연히 대비된다.

지난 2017년의 경우 1~2인 가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이슈로 통조림과 홍삼, 꿀 등 건강식품의 저렴한 세트가 강세였고, 지난해 설 명절은 배·사과 시세가 떨어져 전년 대비 10~30% 저렴하게 과일세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풍어로 인해 어획량이 증가해 가격이 저렴해진 굴비와 갈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가 인기를 얻었다는 게 이마트 측의 분석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사전예약 판매 실적을 살펴봐도 수산 선물세트 신장률이 17.8%로 가장 인기를 끌었다. 이어 건강 15.1%, 축산 11.8%, 청과 8.4% 순이었다.

한우의 경우 지육가(부위별로 나누기 전 한우가격)가 4% 상승해 도매가가 소폭 상승하는 등 가격이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사과와 배 등 청과는 지난해 폭염과 가

을장마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역시 굴비와 옥돔 등 어획량 증가로 전년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수산 선물세트가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사전예약 판매도 전년 대비 14.5% 매출신장을 기록하는 등 명절선물 구입 시 할인 폭이 큰 사전예약 판매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